

07.11.2010 (주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프뉴마(pneuma - breath, wind, spirit)로서 숨, 바람, 영을 말하고 가난하다는 단어는 토코스(ptochos)로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움추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무엇인가에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가난은 무엇입니까?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최소한의 이해, 최소한의 자비,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 우월감이나 뒷배경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남을 하찮게 보는 것이 심령의 가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곧 인격미달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영혼 상태가 바닥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자비이며 절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비운 자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 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에게 복음이 들리며,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그 열매는 이 땅에서 맺어야 됩니다 (마 16:19).

천국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임합니다. 천국은 최소한의 것으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마 17:20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안에는 주의 영광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나라입니다 (눅 4:6, 요 4:24).

천국의 복은 가난한 자의 양식에 있습니다. 만나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며, 그 양식은 부족함이 없는 한 오멜입니다 (출 16:18). 비록 얼마 안되는 양이지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먹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 먹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춥고 덥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험하고 아무 것도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는 은혜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세요. 성경을 공부해서 깨우칠수록 심령이 겸손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드디어 인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도의 마지막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 1:4 볼 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습니다. 시 1:5 보니까 악인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붉은 용이 떨어지는 것 보세요. 에덴에서 나타났던 그 옛 뱀이자 마귀이자 사단입니다.

그 옛 뱀이 또한 온 천하는 꾀는 자로 나오는데 그 붉은 용이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계 12:9)? 붉은 용에게는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정상에 섰기 때문입니다 (사 14:12-14).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 40:1, 미 5:7, 사 30:18). 마지막 때는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고전 3:13).

공력이란 공들일 ‘공’에다가 힘 ‘력’으로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낸 것을 말합니다. 믿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부족함을 주시지 않는 것을! 믿으면 받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신앙고백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시 23:1). 그러니까 말씀을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시편에서는 말씀이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야고보서에는 인내를 이룰 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의 목자 삼아 따르려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4)!

엘리사 때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빛이 있어서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는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대로 옮겨 놓으라.”

그 한 병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채웠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왕하 4:1-7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믿고 사는 문제로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증거는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나타냅니다!